

■ 실속 재테크

달라진 '연말정산'

대형마트보다 재래시장이 혜택 '쏠쏠'

연초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어 월급 생활자들은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줄어들지, 늘어날지에 관심이 많다.

달라진 세법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번갈아 쓰면 연말 소득공제에 잇점이 많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체크카드 공제율이 올해 25%에서 30%로 늘어나 소득공제에 유리해졌다.

특히 재래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결제 수단에 관계없이 공제율(30%)이 적용되고 한도(별도 공제한도 100만원)도 높아졌다. 대형마트보다는 재래시장에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연말 소득공제를 받는 데 있어 유리한 것.

또 총급여 5000만원 근로자도 전세자금 대출원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가 된다는 점 역시 행운이다.

을 연봉이 5240만원인 기아자동차

결제 수단, 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가 더 유리

연봉 5천만원 근로자도 전세자금 소득공제 대상

직원 박모씨의 연말정산은 예로 들면, 박씨는 주부인 아내와 사립초등학교에 다니는 10살 아들, 유치원생인 5살 딸과 함께 1억원을 대출받아 80㎡(24평) 규모의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다.

연말 정산에서 박씨의 세금을 결정하는 기준점은 연봉이 아니라 총 급여(연봉+비과세소득)다. 박씨는 회사에서 매달 식비 10만원, 자녀보육비로 10만원씩을 받는다. 해당 급여(총 240만원)는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아 박씨의 총 급여는 5000만원이 된다.

박씨는 보험료로 연간 120만원, 아들 교육비로 400만원, 딸 교육비로 200만원을 지출한다. 신용카드나 현

금(현금 영수증)으로 1000만원을 사용하고, 이중 절반인 500만원은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써왔다.

지난해부터 체크카드 공제가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체크카드 사용

도 늘렸다. 대략 체크카드로 1000만 원 정도를 사용한다. 본인과 자녀 등의 의료비로는 120만원을, 전세자금 대출 원금·이자로는 연간 1200만원을 지출한다.

이렇게 볼 때 박씨가 올해 내야 할 세금은 총 146만1813원이다. 그러나 내년에 내는 세금은 이보다 38만원 가량이 줄어든 108만원(108만7750원) 정도다.

박씨의 세금이 깎이게 된 사연은 체크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지출액

이 많고, 전세대출금 상환액 공제대상에 새롭게 포함돼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박씨가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전통시장을 이용한 금액은 전체 지출액 2000만원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공제율(30%)이 높은 쪽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내년 신용카드 공제액은 168만7500원에서 225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총급여 액의 25% 초과분만 공제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전세자금 대출원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받게 된다. 공제대상이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돼 박씨도 해당되기 때문. 연간 상환액(1200만원) 중 40%(480만원)를 300만원 한도로 공제할 때 공제금액은 300만원이 된다. 물론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박씨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입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 산단의날 '뮤직 페스티벌'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본부장 최종태)는 21일 광주시 북구 첨단지구 쌍암호수공원에서 광주 첨단·평동·하남산단과 장성단지 입주 기업의 근로자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업단지 뮤직 페스티벌'을 열었다. <산단공 호남권본부 제공>

5대 그룹 오늘 조선대서 채용설명회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이 22일 조선대에서 채용설명회를 연다.

이들 5대 그룹 인사 담당자들은 이날 오후 2시 조선대 IT홀에서 광주·호남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룹별 채용 정책과 취업 준비 전략에 대해 설명한다. 또 성공적인 취업준비 전략에 대한 조언과 대화의 시간도 갖는다. 지난해 대기업에 취업한 선배가 생생한 취업 성공 정보도 전달한다.

/박정숙기자 jwpark@kwangju.co.kr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양식장 직영 도·소매

활전복 전국 택배 가능 합니다.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각종모임 환영, 투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장터를 찾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신선한 전복을 고객님들께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상무지구 호텔 예술의전당

웨딩·객실 대궐인 행사

GRAND OPEN
1주년 기념

새롭게 준비한

총 100가지 뷔페

객실 50% 할인 및
조식뷔페(20종) 무료제공

각종 연회 행사 할인!
(돌잔치, 회갑연, 송년모임, 기업행사)

* 대형예식장 뷔페식비 보다 저렴하거나 동일합니다.

* 기을뷔페는 총 100여가지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및 통침치와 즉석김치로 모십니다.

* 하객 400인 이상 보증시 원목침대 및 협탁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 성수기 혼잡한 대형 예식장에 비해 훨씬 여유있는 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광주 최대의 5000평의 초대형주차장은 호텔예술의전당 뿐입니다.

관광호텔 예술의전당 예약문의 362-0011, 600-9999

박지현의
살림 레슨

■ 쉬운 가을 상차림

대파·가지·어묵 꽂아 양념

오븐에 구우면 보기 좋고 맛도 그만



가을이다. 곡식이 하나 둘 익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날마다 펼어진 밤송이를 간다. 이맘때쯤이면 우리 집에 손님도 늘어난다. 집에 온 손님이니 그냥 보내지는 못하고 해마다 반복하다보니 이젠 제법 모양새를 내고 되었다. 언뜻 보면 화려한 상차림이나 들어다보면 벗어난 야채에 시장물건 조금 보탠 것들뿐이다.

두부와 도토리묵 모자이크 팬·말 그대로다. 두부와 떡을 몇 조각으로 썰고 사이사이에 비치해 바둑판 모양으로 만든 것이다. 그 위에 빨간 미니 토마토나 푸른 잎 몇 유틻하면 장식은 끝인데 옆에 양념을 곱게 담아낸다. 참 나만의 양념비법이 있다면 간장과 함께 참기를 말고도 약간의 유효수를 넣는 것이다.

만드는 방법은 캡에 멀티 및 미리 넣고 커피 물 냇듯이 뜨거운 물 조금 부어 10분쯤 후에 쓰면 되는데 특유의 간장 냄새가 줄어 더 달백하다. 이미저도 귀찮으면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천연 조미료 가루 조금 넣어도 좋다. 사실은 그냥 떡과 두부의 평범한 맛인데도 작은 변화(?) 때문인지 손님들의 카메라 모델이 늘 되었던 목록이다.

아채교차=필요한 재료로는 대파와 가지, 그리고 미니 토마토와 양파와 동그란 어묵이 전부다. 어묵을 제외한 모든 재료는 꺼져 꽂을 정도로 썰고 소금과 후추 그리고 참기를 조금 넣고 버무려 놓는다. 그리고 색을 맞춰가며 꺼져 꽂아 오븐에 구우면 되는데 아외라면 냄새를 피워 구워 먹어도 맛있다. 참 대파는 하얀 머리 부분만 쓰라는 것. 구워 놓으면 달착지근하게 변

하는데 즐길해진 어묵과 어울려 여기 말로 '개미'가 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두부에 마요네즈 소스 후추 레몬즙과 치즈 가루 뿐인 것을 내어 끼얹어 먹기도 하고 취향에 따라 머스타드나 케첩을 써어 먹어도 좋다. 물론 어묵대신 소시지나 야채만 꽂아도 좋다.

참나물=고기에 먹으면 미나리와 셜러리를 합한 듯 언제 먹어도 개운하고 상쾌하다. 잘 씻은 참나물은 억센 즐기는 때 버리고 생채로 무치는데 만들어 놓은 초장 몇 숟갈 넣고 참기를 과만 치면 끝이다. 색깔이 안 난다 싶으면 고춧가루 조금 더 넣으면 좋다. 게다가 참나물은 베타카로틴이 많아 앙구조증이나 비만방지에 좋다고 하니 현대인들에게 안성맞춤일 것이다.

음식은 손님들 얼굴 맞으며 차리는 것이라 했다. 너무 숨죽거나 말라 버린 상차림에선 맛도 멎고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위의 메뉴들은 '빡'이다. 꽂치를 오븐에 넣어 놓고 썰어 내거나 무쳐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리 오래지 않기 때문이다.

올 해에도 우리 집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것 같다.

목록히 밥 한 끼 대접하리라. 그 밥 때문에 서로가 더 떠듬해졌으면 좋겠다. 마음까지 부른 밥상. 바로 내가 차리고 싶은 가을 밥상인데 유품이려나.

<담양댁의 열 두 달 살림법> 저자 jazzchants@hanmail.net

정부, 농협 구조개편 4조원 지원

요구안보다 2조 삭감...부족분 국회서 논란 일듯

정부는 내년 3월로 예정된 농협구조개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4조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내년 예산안에 필요재원을 반영키로 했다. 하지만 이는 당초 농협이 요구했던 6조원보다 2조원 적은 규모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자본지원계획'을 2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보고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정해길 의원(한나라당)이 20일 자체 입수한 정부의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자본지원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농협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자본을 25조4200억 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당초 농협이 사업구조개편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부에 지원을 요구한 자본금 27조4200억원에서 2조원 삭감된 것이다.

정부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과 관련,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해 4조 9500억원이 필요한 것을 비롯해, 신용사업 15조3400억원, 농협중앙회(조합상호지원자금) 3조9400억원, 교육지원 1조1900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7월29일 기준으로 농협보유자본이 15조1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부족 자본 10조2600억원 가운데 6조2600억원을 농협이 자체 조달하며 나머지 4조원을 정부가 지원키로 부처간 협의를 마쳤다.

정부는 4조원 가운데 3조원은 농협이 상호금융특별회계 차입 또는 농업

금융채권 발행으로 조달토록 하고 이자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며, 1조원은 유가증권 현물출자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자차액 지원을 위해 1500억원(이자보전 기준금리 5%)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하고, 1조원 유가증권 현물출자는 추후 기재부, 금융위, 농협 간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또 지원기간은 농협중앙회의 향후 경영상태 등을 고려해 사업구조개편 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농협중앙회는 당초 부족자본 6조원을 정부가 중앙회로 출연 또는 출연에 준하는 조건(무배당 또는 1% 수준 배당)으로 일시에 지원해줄 것을 주장했었다.

/연합뉴스